

논술 - 인문

서강대 편

코드킴

커다랗고 털 많고 귀여운 푸근한 고양이를 위해.

개괄

서강대학교는 2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시간은 100분입니다. 자수 제한은 논제당 800~1000자 입니다. 한 문장 당 35~60자, 평균 50자 수준을 유지하세요. 주술 호응, 논리적 구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강대는 문항 당 800~1000자 사이를 요구하니, 대충 16~20문장 사이에서 글이 완성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한 문항에 얽혀있는 제시문의 수도 결코 적지 않은데다가,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속하는 제시문들이 전부 다릅니다. 제시문들이 성균관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모호합니다. 이들을 읽어내는 데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당 답안의 작성까지 50분 이내에 해내셔야 합니다.

서강대 논술을 접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문제의 유형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명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논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시문 독해를 통해 제시문들 간 관계성을 잡아내신 뒤에, 논제의 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신유형이(그렇게 새로운 건 아닐 겁니다만)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서강대 인문논술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건 부족한 시간, 많은 제시문, 명확하지 않은 논제가 원인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가장 먼저 논제 분석 방법과 제시문 독해/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에 유형별 풀이 방법, 작성 방법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당 원리들을 각각 보여줄 수 있는 논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수능 끝나고 공부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지내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논제의 분석

서강대 논술 문항의 발문은 생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주제를 담고 있는 유형의 발문이 있을 수도 있고, 주제를 담지 않고 있는 유형의 발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문항에 여러 유형이 융합되어 복합적인 서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럽게 길어서 읽기도 짜증날 때가 있고, 발문은 간단한데 거기에 이상한 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조금의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능 공부를 하실 때에 긴 영어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주어부, 술어부(적어도 전 이렇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끊어서 읽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인문논술의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대 논술의 문항들은 요구하는 점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끊어 읽기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써야하는지, 논제의 요구사항 별로 끊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끊어 읽기를 하신 뒤, 각 요구사항을 일반화하여 유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봅시다.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 [가]의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영향을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 제도 실시 이후 [마]의 현상이 일어나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바]를 통해 설명하십시오.

위 논제는 요구사항을 크게 나누자면 둘 입니다. 그것도 둘 다 적용해설 논제입니다. 단순한 편이죠.

1. [가]의 최저 임금제 실시로 인한 영향을 [나]~[라]로 설명
2. [마]의 현상에 대해 요약
3. [바]를 활용해 장기적 측면 설명.

독특한 비주얼로 우리를 당황시키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문제] (800~1,000자)

[가]는 두 종류의 특수한 재화를 설명하고 있다. [나]~[바]는 두 재화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각 재화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님.) 다음 조건에 따라 한 편의 완결된 글로 논술하십시오.

조건 1 | 두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십시오.

조건 2 | [나]~[바]가 어떤 문제점에 해당하는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조건 3 | 두 문제점의 공통점을 토대로 [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아], [자]의 예를 통해 제시하십시오.

이 논제에서 해야 할 것들을 나눠봅시다. 형태만 낫설지, 막상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1. [가]의 두 문제점 요약 제시
2. [나]~[바]를 [가]의 각 문제점에 분류
3. [사]의 한계, [아],[자]를 그 한계에 구체화하여 해결 방안 제시

너무 긴 친구들 역시 있습니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고, [라]에 근거하여 [다]를 평가한 후, [사]의 라스티냐크에게 상위 1%의 유산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경우 그의 결정이 [바]에 제시된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설명하라.

길이에 겁 먹지 말고 차분히 끊어 읽어봅시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이용하여 [마]의 시사점을 설명하고/, [라]에 근거하여 [다]를 평가한 후/, [사]의 라스티냐크에게 상위 1%의 유산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경우 그의 결정/이 [바]에 제시된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설명하라.

1. [마]의 시사점을 [가],[나],[다] 로 설명
2. [라]의 내용으로 [다] 평가
3. [사]의 상황 요약
4. [바]에 제시된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의 상황으로 3을 설명

이처럼, 낫설고 긴 문항들이라 하여도, 끊어 읽기와 유형의 일반화 연습이 쌓이면 문제 분석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강대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약
- 비교
- 분류 요약
- 적용 해설
- 비판
- 평가
- 문제 해결

앵?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모든 유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시문의 독해

제시문(보기)의 독해 방법부터 살펴봅시다. 서강대의 제시문들은 대체로 주제에 대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시문들은 길이가 길지 않고 한 단락 수준이기 때문에 깊은 수준의 독해는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읽되, 시간 안에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시문들 간의 관계성을 잡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명확하고 시간 안에, 제시문들간의 관계성까지 추론해내셔야 합니다.

글의 종류 정하기

글의 종류를 생각해보고, 글이 작성된 방식에 따라 글을 정리한다면 명료한 독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날 글들은 크게 나뉘보자면 비문학/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 비문학은 설명문/주장문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학은 시/소설 류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문학의 정리법부터 알아봅시다.

비문학 정리법

비문학은 작성 방식에 따라 설명문/주장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명문은 “설명 대상 + 특징”으로 깔끔한 정리가 가능하고, 주장문의 경우에는 “주장 + 근거” 형태로 깔끔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중 설명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봅시다.

설명의 방식은 인과/나열(공시적 묘사)/순서(통시적 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과의 경우에는 “발생한 사건과 원인(영향을 주는 요소)”관계로 글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나열의 경우에는 나열된 대상들을 특징에 맞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순서의 경우에는 나열에서 단순히 시간 순서를 부여하면 됩니다. 각 과정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정리하시고, 그 과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정리법

문학은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입학 인문논술은 정답이 정해져있듯, 문학도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분류 요약 유형 논제에서 진땀을 좀 빼실 겁니다. 여러 대학들은 이런 모호성을 막기 위해 주제를 내세우고, 해당 주제로 제시문을 읽도록 유도시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각 논제마다 주제를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루어야 할 제시문들에서 공통화제를 찾으세요. 그게 주제입니다.

[나]~[사]는 [가]에 나타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법을 드러내는 제시문을 찾아 일 대 일로 대응하여 논술하시오. (예: 발생 원인 [A]에 대응하는 해결 방법 [B])

위의 경우에는 논제에서 ‘[가]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의 독해를 통해 제시문에 드러난 사회 문제를 파악하신 다음, 그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독해하세요.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바]에 시가 나와있습니다. 이 제시문을 읽으려면 아래의 시 독해법을 활용하시되, 주제가 각 항목에 어떻게 드러나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찾아내려가시면 됩니다.

시 독해법

시는 화자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찾으세요. 단, 언제나 논제의 주제를 고려하시며 읽으셔야 합니다.

‘화자의 상황’, ‘화자의 감정’, ‘화자의 태도’.

이 세 개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말고, 필요하지 않으니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설 독해법

소설은 ‘인물/사건/인물과 사건의 관계’ 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인물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제를 고려하여 해당 요소들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요약의 방법론

서강대학교 인문 논술에서는 요약을 대놓고 요구하는 적은 드뭅니다만,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실 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의 방법은 다른 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핵심어 찾기, 논리적 구성 유지하기, 자신만의 표현 사용하기.

핵심어 찾기

겉으로 드러나는 핵심어를 찾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말이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혹은 제시문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핵심어를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일반화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나 소설도 대부분 핵심어가 숨겨진 편이기에, 그들을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해야 합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 찾기

사례의 일반화

시나 소설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분석하여 의미 도출

논리적 구성 유지하기

논술 교과서에서는 요약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줄여서 쓴 단순 요약과 논리적인 구성을 반영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볼 대입 논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 요약이 아닌 논리적 구성을 반영한 요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시문에서 먼저 논리적 구성과 순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글에서 전제와 결론을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 논리 순서도에 맞추어서 문장들을 배열해보고, 그대로 작성해보면 됩니다.

정말 논리적 구성이 잘 반영되었다면 중요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따옴표를 사용하여 중심이 되는 단어를 강조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표현 사용하기

대부분의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제시문과 차별화를 원하는 것이죠. 이는 논리적 구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논리적 구성은 문장의 표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어의 측면과 문장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측면

단어를 제시문과 다르게 쓰는 겁니다. 동의어, 유의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동의어나 유의어를 찾아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여 해당 단어의 뜻을 풀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장의 측면

너무 긴 문장이 만들어지거나, 너무 문장이 짧게 나온다면 그들을 나누거나 합쳐보는 것입니다. 이는 많이 해봐야 표현력이 늡니다.

(바)는 법률에 근거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독재권력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바)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위험할 수 있다. 독재 권력의 유지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략한 비교의 방법론

서강대에서는 연세대 만큼 분석적인 비교 논제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원리의 비교는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항에서 아주 간략한 비교를 요구하는 것은 흔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아주 일반적인 비교의 방법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논술의 비교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서술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기 위해 서는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시문들을 크게 나누는 기준을 대분류라고 합니다. 대분류는 논제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분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이를 직접 찾아야하는 경우죠. 이 때, 대분류를 찾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제시문의 독해가 필수적입니다. 대상을 모두 독해한 다음, 그들의 공통 화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비교는 공통 화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녔을 때에 가능한 것임을 생각해보신다면 간단합니다.

표 사용하기

이제 제시문의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비교 기준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도출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를 그려 제시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사용했을 경우에 차이점들을 명료하게 알아보기 쉽고, 표의 각 항목에 문장마다의 핵심어가 제시되어 있기에 나중에 문장 개요를 작성할 수고를 덜어줍니다. 무엇보다도, 비교 기준을 도출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	(나)
공통점		
주장		
근거		

표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은 일단 맨 위의 공통점 항목, 그리고 결론과 전제 항목입니다. 이 셋은 가장 기본적인 비교이며 나중에 비판이나 견해제시 논제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통점은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논제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점을 딱히 찾을 수 없다면 대분류를 적어주시고, 대분류에 대해 제시문들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통점은 차이점을 부각시켜줄 뿐더러, 우리가 제시문을 어떤 것에 집중하여 봐야하는지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주장 항목은 언제나 대분류에 대한 주장입니다. 만일 '낭비'가 대분류라면, 제시문들과 '낭비'라는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제시문에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근거 항목에는 대분류에 대한 주장이 제시문의 어떤 부분을 통해 나오게 되었는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류 요약 유형

분류 요약 유형 논제는 성균관대의 1번 문항과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논제의 표현형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제시문들을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으로 분류하신 뒤, 그들을 1~2줄로 요약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요령은 존재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예시는 뒤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 걱정마세요.

1. 분류 기준 제시
2. 분류 입장 제시
3. 해당 제시문 요약
4. 분류 입장 제시
5. 해당 제시문 요약
6. 제시문 간 관계 설정하기(3,5 과정에서)

서술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일 가상의 제시문 1~6이 등장하고, 이들이 1,2,3 그리고 4,5,6으로 각각 나뉜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논제에 나온 분류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다음과 비슷한 문장으로.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 첫번째 입장을 제시해줍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이제 각 제시문들을 한 두줄로 요약해줍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제시문 1의 요약, 제시문 2의 요약, 제시문 3의 요약’

이를 한번 더 반복합니다.

제시문 1~6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제시문 1,2,3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이다. 제시문 1의 요약, 제시문 2의 요약, 제시문 3의 요약.

그러나 제시문 4,5,6은 “주제”에 대해 ~한 입장을 나타낸다. 제시문 4의 요약, 제시문 5의 요약, 제시문 6의 요약.’

성균관대의 것처럼 제시문들 간의 관계 설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허나, 하고 싶으시다면 하세요. 책임은 못 집니다.

적용 해설 방법론

표, 그래프, 시나 소설 같은 문학을 기준 제시문을 이용하여 해설하라는 논제 유형입니다. 해설, 해석, 분석, 설명 등 부르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제시문으로 피설명항을 설명하라는 것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이 논제에서는 표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와 문학이 나왔을 때, 일반 비문학이 나왔을 때 풀잇법에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 챕터를 공부하실 때에는 제가 과거에 업로드한 성균관대 방법론을 약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자료분석에 대해서는요.

도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일단, 그래프를 보기 전에 기준 제시문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얕은 분석으로 접근했다간 피설명항에 대한 다각적 설명이 어렵습니다. 기준의 요소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기준 제시문을 분석했다면, 도표를 볼 차례입니다. 도표나 그래프의 큰 흐름(일반적 흐름)을 파악한 뒤, 예외사항(특수한 사항)을 확인하는 식으로 분석을 수행합니다. 수치를 인용하며 표나 그래프를 글로 옮겨 적는다는 생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우선 분석한 크고 일반적인 흐름을 두괄식으로 적은 뒤, 세부적인 내용들을 글로 옮기시면 됩니다.

해설,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1:1 대응입니다. 기준 제시문에서 나온 요소들을 도표·그래프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들과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응에 그치지 말고 어째서 자료와 연결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제시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면 해석과 설명의 다각화가 쉬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보셨다면 비교 논제와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모든 해설 논제는 비교 논제에서 공통점을 찾는 논제와 비슷합니다. 기준 제시문과 표의 분석에서 동일 항목들을 연결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것. 피설명항이 표나 그래프로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시, 소설, 극 등 문학이 나왔을 때

표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와 비슷합니다. 일단 기준 제시문을 분석하고 문학 작품을 분석합니다. 문학 작품의 분석에 대한 내용은 1주차에 포함된 ‘독해 방법론’ 파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문학작품의 내용을 따옴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어느 부분이 기준 제시문과 부합되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표나 그래프를 설명할 때처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서술해줍니다.

응용 해설의 서술

기준 제시문을 요약하라는 말이 논제에 포함된 경우 답안의 1/4 정도를 요약에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제시문을 요약할 때에도 앞서 배운 요약 방법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역시 논리적 구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요약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설명항과 대응을 할 때에도 기준 제시문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쓰시는 게 깔끔합니다.

비판의 방법론

비판 유형은 여러 유형의 기본이 됩니다. 서강대학교의 기출 문제에서도 직접적으로 비판을 묻는 문항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비판을 응용한 형태인 평가나 견해 제시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판의 방법론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에 대한 주의

비판 유형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틀렸는지, 내가 왜 옳은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만을 공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판이 아닌 고집이며, 우기기에 불과합니다.

비판 대상 분석

비판 대상을 분석하려면 기준 제시문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다른 제시문을 분석하는 최고의 방법은 비교입니다. 표를 그려 제시문을 한눈에 정리해줍니다.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주장과 근거로 나눕니다. 근거의 근거가 되는 전제나, 함축도 파악한다면 더 수월하고 다차원적인 비판이 가능합니다.

비판의 구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판은 차이점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비교와 비슷하지만, 이를 ‘문제점’으로 끌고 간다는 것에서는 비교와 다릅니다. 문제점은 차이점과는 다르게 여러 논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대로 했을 때의 단점, 한계 등 이른바 문젯거리가 생김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비판 또한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비판의 논점을 잡는 데에 효과적인 몇몇 도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 구상법

우리가 비판하게 될 명제들은 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정책 명제와 사실명제입니다.

정책 명제 : 당위성을 가집니다. 주로 “~해야 한다.”의 형태.

사실 명제 :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주로 “~이다.”, “~다.”의 형태.

이들을 구분하고 다른 방법으로 비판에 접근해야 합니다.

정책 명제 “네 주장대로 했을 경우엔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야.”

결과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① 효율성 측면의 접근 : 상대방의 주장이 실현되는 과정/결과가 나의 주장보다 효율적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㉞ 장/단기적 문제 : 상대방 주장대로 했을 경우, 그의 결과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양상으로 진척되는가를 생각해봅니다.

㉟ 현실성의 문제 : 정말 이게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가를 생각해봅니다.

㊱ 사회적/문화적 문제 : 사회적/문화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㊲ 도덕적 문제 : 상대방의 주장에 도덕적 흠결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이것 말고도, 각 논제마다 찾아서 쓸 수 있게끔 그때마다 도구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만 목숨 걸지 마시고, 비판의 논점들은 스스로 계속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사실 명제 “네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해당 명제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예) 해가 서쪽에서 뜬다. 를 비판한다면

해는 동쪽에서 뜨니, 네 말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가 될 것입니다.

예증의 방법

예시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거나 나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을 예증이라 합니다. 예증을 통해서 비판할 경우, 타당하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사례와 내용이 1:1?

예시를 고르기 전에, 내가 들려는 예시와 비판 대상이 1:1로 대응이 되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공동체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뜬금없이 자본주의의 예시를 들면 낱이겠죠. 항상 자신이 무엇을 써야하고 쓰려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적

예시는 대중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마이너한 예시를 든다면 비판의 효용은 떨어질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시들을 여러 모범답안들을 답습하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 상상/이점 상상

예시를 어떻게 들어야하는가? 처음 예증을 하려면 막막할 겁니다. 그럴 땐 상대방의 주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시를 찾지 못하겠다면 부작용만 써줘도 비판의 논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교과서 사용

예시는 생각보다 가까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이나 윤리과목의 교과서는 다양한 예시로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실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마땅한 예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교과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술의 방법

비판 대상에 대한 요약은 먼저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의 방법론에 있는 요약법을 사용하여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비판할 부분들이 드러나도록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비판의 서술에 들어갑니다. 첫 문장으로 드러내야 할 것은 비판 근거가 되는 지문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대상을 보았을 때,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의 "내용"으로 "비판대상"을 보았을 때, 이는 올바르지 않다.', '잘못되었다.', '타당하지 않다.' 같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어떤 부분이, 내가 찾은 비판 구상점을 근거로 사용하여 기준 제시문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비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비판점이 여럿일 때, 이들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면 정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예시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으로 빼두는 것이 글의 전개상 깔끔합니다.

평가 방법론

평가 유형의 논제는 기본적으로 비판 방법론을 필요로 합니다. 평가 유형은 보통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적 평가는 기준 제시문과 대상 제시문의 차이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비판 유형과 비슷합니다. 한편, 긍정적 평가는 기준 제시문과 대상 제시문의 공통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적용 설명 유형과 비슷합니다. 평가는 위에서 설명한 적용 해설 방법론과 비판 방법론의 융합형이라는 것입니다.

평가 유형은 항상 기준 제시문과 대상 제시문의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두 제시문을 상세히 분석하신 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냅니다.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할 수 있는 모든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유형도 마찬가지로 비판처럼 주장을 하는 것이기에 평가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비판 논제보다는 근거가 훨씬 간단한 편이라는 겁니다.

평가 유형에 관한 것은 뒤에 있는 문항 해설을 통해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

상황정리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상황을 요약하여 작성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드러내주시면 됩니다.

방안 제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론적 주장으로 제시합니다. 견해 제시 유형과 마찬가지로, 서술하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이유 서술

자신이 선택한 입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용이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득해줍니다. 이는 제시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세부적 방안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니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범주를 정하여 제시하면 편합니다.

국내 - 국제, 개인 - 집단, 개인 - 국가, 제도 - 의식

등의 범주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의 해결책은 ~, 개인의 의식도 ~.”

와 같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 방안들이 문제점을 잘 보완시켜줄 것이라고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결론부를 작성하실 때엔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결론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제시한 해결방안의 발전적인 전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례를 제시한다면 실제 사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성이 높을 수록, 대중적일수록 좋습니다.

요약 유형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우리는 한정된 정보로 편향된 사고를 한다. 제한된 정보 내에서 개연성을 맞추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편리하게 이야기를 지어낸다. 이는 무지함을 외면하면서 더욱 확고해진다. (나)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올바른 정보를 기초로 생각하는 것인지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다)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잘못된 사고를 할 수도 있다. 지식인들마저도 올바른 사고가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문제] (800~1,000자)

삶의 방식에 대한 [가]와 [나]의 견해를 대비하고, 이 둘을 조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바]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가]

자연과 일치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라. 뒤에 따라올 비난이나 비판 때문에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만일 행하고 말해야 할 선량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말하고 행할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이끄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비판을 하도록 자극한 충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의 말에 의해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당신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 자연의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라.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나]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한 태도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요, 반대로 겸손한 태도는 창, 칼 화살 등과 같은 무서운 병기(兵器)라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창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여도 겸손에서 오는 힘을 당할 수는 없다. 사람들과 사귄 때 착하고 아름다운 말을 건네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포근한 비단 옷을 입혀 주는 것보다도 따뜻한 것이요, 반대로 사람을 중상(中傷)하는 나쁜 말은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욱 깊은 상처를 안겨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겸손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아닐 때에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넓다 해도 마음 놓고 밭 디딜 땅이 없게 된다. (...) 밭을 제껴디디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리만큼 몸 둘 곳이 없게 된 원인은 바로 말, 곧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나쁜 말 때문인 것이다. 큰길에 나가면 어지러우리만큼 복잡하고, 좁은 길과 험한 길은 다니기가 몹시 위태로우므로 설령 조심하지 않으려 한대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된다. 교만한 태도가 결국 자기 한 몸 몸담을 곳이 없게 만든다는 무서운 사실을 안다면 애써 겸손하고자 아니해도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

비교 유형 풀이

이 논제를 끊어 읽어본다면 ‘삶의 방식에 대한 [가]와 [나]의 견해를 대비하고’ 라는 부분을 통해 간략한 비교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둘의 공통점을 크게 잡기 어렵다면, 공통 화제를 공통점으로 잡아내줄 수 있습니다. 이후, 주장과 근거를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정리해본다면

	[가]	[나]
공통점	삶의 방식	
주장	주체적 삶의 방식	겸손한 삶의 방식
근거	본성과 보편적 자연의 길을 따라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비교 유형 예시 답안

[가]와 [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그 양상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는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본능과 자연적 길을 따르며 타인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겸손한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그들을 배려하며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문제] (800~1000자)

[가]~[다]의 논지를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바]를 분석하시오.

[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가 마치 자신이 아는 전부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구할 수 있는 정보로 가장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만일 그것이 좋은 이야기라면 믿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을수록, 즉 퍼즐에 비유하면 맞출 수 있는 조각의 숫자가 적을수록 오히려 정합적 이야기를 만들기 쉽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세상이 이해된다는 확신은, 무한대에 가까운 우리의 무지함을 애써 외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

대니얼 카너먼 , ‘생각에 관한 생각’

[나]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때 ‘이것은 원래 나의 생각이야’라고 믿으며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어쩌면 편향된) 정보야’라고 의식한 다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자유라는 것을 지극히 단순히 생각하면 나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깊게 파고들면 그 의사 자체가 진정으로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냐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후쿠하라 마사히로, ‘하버드의 생각수업’

[다]

보편적 신조를 세우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지만, 일단 확실히 성립되기만 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난공불락(難攻不落)의 힘을 지닌다. 또한 그 어떤 철학적 오류를 내포하든 간에 최고의 지성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의 민족들은, 면밀히 검토해보면 몰록(Moloch, 아이를 제물로 바쳐 모시는 썸족의 신)의 신화만큼이나 야만적인 종교적 전설들을 재론의 여지 없는 진실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가.

귀스타브 르 봉, ‘군중 심리’

[라]

이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전문가의 충고를 거부하는 행동이 마치 고급문화 취향의 표식이기라도 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들어 미식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살균 처리를 안 한 유제품을 섭취할 권리를 부르짖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 저온살균법이 우유의 풍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병원균을 완전히 없애 주는 처리방식이기도 하다. (...) 생우유 먹기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이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생야채가 우리 몸에 더 좋다면 결국 다른 것들도 전부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어쩌서 자연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그대로 먹지 않는가? 어쩌서 더 순수하고 단순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가? (...) 우유는 아이들한테 주요 음식이며, 그런 면에서 생우유는 명백하게 위험한 식품이다.

미국 질병통제국(CDC) 소속 의사들이 이 논란에 즉각 개입을 시도하였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질병통제국은 2012년에 생우유로 만든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저온살균 제품을 섭취할 때보다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150배나 더 많음을 밝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 식품의약품의 전문가는 그 사실을 가능한 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느라, 생우유 제품 소비자를 충알 대신 식품을 사용하는 러시안롤렛 게이머라고까지 불렀다. 그러나 어떤 경고도 생우유를 마시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툼 니콜스, '전문가와 강적들'

[마]

우리는 왜, 언제부터 어동육서*를 금과옥조로 삼았을까. 유학 전통을 계승하는 성균관의 000 의례부장은 인터뷰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는 차례상은 1960, 70년대 이후에 서로 집안 뿌리를 양반인 양 과시하려는 문화가 잘못 정착된 것”이라며 “흔히 차례 규칙의 근거로 생각하는 율곡 선생의 『격몽요결』에는 실제로는 어동육서 같은 규칙이 없을뿐더러,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기제사상이지 차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

심지어 조선 유교 예법의 기준이 된 고대 중국 문헌에도 이런 복잡한 규칙은 없다고 한다. 음식 문헌을 연구하는 000 씨는 “(...) 어느 지역, 어떤 집안의 규칙이었을 순 있으나 전 국민이 따라야 할 하등의 이 유가 없는 규칙들이 메모랜덤이 된 이 현상은 거의 인류학적 연구 주제”라고 분석했다.

*생선은 동쪽에 두고, 고기는 서쪽에 둬

한국일보, 2016. 9. 7.

[바]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 피는 냄새가 나요.

한 여자의 / 젊음이 삭아 가는 냄새

한 여자의 설움이 /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모가 / 간을 맞추는 냄새

부엌에서는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 타는 소리가 나요.

세상이 열린 이래

똑같은 하늘 아래 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방에서 큰소리치고

한 사람은

종신 동침 계약자, 외눈박이 하녀로 / 부엌에 서서

뜨거운 찻농을 제 발등에 붓는 소리,

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삭은

빙초산 냄새가 나요.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논제 분석

이 논제의 전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습니다만, 후건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바]를 분석하시오”는 앞에서 요약한 세 제시문들을 사용해서 [라]~[바]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각 제시문에서 어떤 설명 기준의 제시문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이런 유형에서는 공통점을 찾아 그를 중심으로 추론하면 됩니다.

적용 해설 유형 풀이

[라] - [가]

생야채에 대한 지식처럼 한정된 지식을 사용하여 생우유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려 하지도 않음.

[라] - [나]

생우유 옹호자들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잘못된 정보로 믿음을 형성함. 자신의 믿음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

[라] - [다]

생우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고, 생우유 옹호론자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으며 바뀌려고 하지도 않음.

[마] - [나]

전통적인 차례상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결여된 결과로 나타난 것.

[마] - [다]

어동육서처럼 차례상을 차린다는 대중적인 관습이 우리에게 아무런 비판적 태도 없이 수용되어 형성됨.

[바] - [다]

여성 차별적인 가부장적 관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임. 장기적으로 지켜져 왔고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있기에 이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여길 수 있음.